



문서번호 : 21-10-사무-04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도형)

제 목 : [공동보도자료] 시민사회, 전세계 리더들에게 인권을 환경정책의 중심에 둘 것을 촉구하다

전송일자 : 2021. 10. 13.(수)

전송매수 : 총 2매

[공동보도자료]

시민사회, 전세계 리더들에게 인권을 환경정책의 중심에 둘 것을 촉구하다

150개 이상의 시민사회단체와 학계, 전세계 리더들에게 국제 및 국내 환경 정책과 실무에
인권을 통합할 것을 촉구하는 공개서한 발표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을 포함한 50여개국 150개 이상의 국내·외 시민사회단체와 학계는 이번 달과 다음 달에 걸쳐 이루어질 기후와 자연에 관한 제15차 유엔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와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앞두고 지난 10일 전세계 리더들에게 인권을 환경 정책의 중심에 둘 것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발표하였습니다.
3. 공개서한과 서명단체들의 공동보도자료는 아래 붙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끝.

* 불임자료1. 서명단체 공동보도자료(국문 번역본 및 영문 원문)

** 불임자료2. 공개서한(국문 번역본 및 영문 원문)

2021년 10월 1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김도형

[붙임자료1] 서명단체 공동보도자료(국문 번역본 및 영문 원문)

보도자료: 시민사회, 전세계 리더들에게 인권을 환경정책의 중심에 둘 것을 촉구하다

150개 이상의 시민사회단체와 학계는 전세계 리더들에게 국제 및 국내 환경 정책과 실무에 인권을 통합할 것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에 서명하였습니다.

다음 달에 이루어질 기후와 자연에 관한 역사적인 협정을 앞두고, **50개국** 이상에서 **150개** 이상의 시민사회단체와 선주민 단체 및 학계는 오늘(**10월 10일**) 전세계 리더들에게 인권을 환경정책의 중심에 둘 것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발표하였다.

유엔 인권과 환경 특별보고관 **David R. Boyd**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기후 위기, 생물 다양성의 손실 및 만연한 오염은 과학적으로 명백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 문제에 대한 인권 기반 접근 방식이 사람과 지구를 위해 정의롭고 건강하며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달성하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증거도 있습니다.”

지난 주, 유엔 인권이사회는 건강한 환경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그 직후인 **10월 11일**, 세계 정상들은 유엔 생물다양성 협약의 제**15차** 당사국 회의(**COP15**)를 위해 모인다.

지구의 자연과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긴급하고 혁신적인 조치를 강조할 **COP15**에서 인권단체와 연대자들은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에서 토착민과 지역공동체의 권리를 제대로 인정받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국제환경개발연구소(International Institute for Environment and Development)의 앤드류 노튼(Andrew Norton) 소장은 “몇 달 뒤 있을 국제 협상은 지구온난화와 생물다양성 손실을 모두 막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노튼은 “그러나 그 어떤 합의도 그 핵심에 인권이 없다면 작성된 종이보다 가치가 없을 것이다. 진정으로 정의롭고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기후와 자연에 대한 정책이 위기의 최전선에 있는 공동체의 필요와 권리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모든 대륙에 걸친 북반구와 남반구의 저명한 인권단체와 시민사회단체 등은 이번 공개서한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지구촌으로서 우리는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 및 환경 피해 증가, 토지 수탈, 식량 및 물 주권의 상실, 빈곤 및 불평등의 증가, 옹호자들에 대한 공격 및 살해 증가,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 및 이주, 해양의 건강 악화, 심각한 생물다양성 손실 등 여러 교차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경 정책에 대한 전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이는 인권을 포함하고 역사적으로 뿌리 깊은 사회적 불의나 생태학적 파괴, 기업에 의한 국가 장악, 부패와 불처벌, 그리고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포함한 구조적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바로 이번 달에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건강한 환경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인권 보호가 더 나은 환경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증거가 있지만, 인권과 환경의 총체적이고 불가분한 특성을 인정하라는 요구는 종종 국제적, 지역적 및 국가적 환경과 기후 정책 포럼에서 무시된다.

“행동을 할 시점은 바로 지금이다. 우리는 세계의 리더들이 인권, 기후 및 환경을 완전하고 단호하게 통합할 것을 촉구한다. 그럼으로써, 우리와 우리의 미래 세대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번영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연과 인간 모두 고유의 가치를 지닌다는 점과 정부가 인권을 존중, 보호, 이행 및 증진할 의무에 진지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자연과 인권의 총체적이고 불가분한 연결성은 자연과 가장 가까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깊이 느끼고 있다.

브라질 아마존에서 환경옹호자들의 정의와 안전을 위해 일하는 인권옹호자 클라우델리스 실바 도스 산토스(Claudelize Silva dos Santos)는 “인권을 수호하고 환경을 수호하는 것은 곧 존엄성을 수호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몇 년 동안 숲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투쟁이 공격받고 범죄화되었기 때문에 이는 아마존에 있는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중요합니다.” 라고 말했다.

---끝---

연락

추가 정보나 공개서한 최신본, 인터뷰 연결 등을 위해서는 아래 연락처로 연락 바랍니다:

- Ligia Baracat ligia.baracat@cjcoalition.org | Corporate Justice Coalition
- Tom Dixon tdixon@forestpeoples.org | p: +44 1608 690760 | Media Lead, Forest Peoples Programme

추가 정보 및 인용문구

공개서한은 세계의 리더들이 다음의 사항을 보장할 것을 촉구합니다.

“... 기후와 생물다양성 위기, 토지와 물, 자원의 소유권과 사용, 생태계 파괴, 기업의 책무성과 무역 등 환경과 관련된 모든 정책의 입안은 인권과 환경을 통합적으로 다룬다.”

추가 인용문구

Joji Carino, 필리핀 (Forest Peoples Programme / Indigenous and Local Knowledge Centres of Distinction / Member of IIFBES caucus)

“선주민들의 가치와 지식은 생물다양성 상실과 기후 변화의 위기 속에서 인간과 자연의 상호 관계에 대한 통찰력을 제시합니다. 생물다양성과 기후, 인권에 대한 논쟁에는 선주민들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Lakpa Nuri Sherpa, AIPP (아시아)

“세계시민으로서 우리는 모두 자연의 일부이며 자연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선주민으로서 우리는 수천 년 동안 우리 땅의 수호자였으며 우리가 살고 있는 생태계와 깊은 상호 작용을 해왔습니다. 우리의 땅이 지구상에서 가장 생물다양성이 높은 곳 중 하나라는 것은 증거로 증명됩니다. 선주민과 지역공동체의 인권, 지식, 혁신, 가치를 인정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생물다양성을 지속 가능하게 이용하고 보존하기 위한 세계적 의제를 추진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Edna Kaptoyo, Indigenous Information Network (아프리카)

“글로벌 목표를 달성하고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고 지속 가능하게 이용하는 데 필요한 혁신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자연과 우리들의 상호 작용을 알아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세계가 직면한 현재의 생물다양성 위기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 실행하는 데 있어 각자의 역할을 알게 될 것입니다.”

Edinho Batista de Souza, Coordinator, Indigenous Council of Roraima (CIR), 브라질,
다음과 같이 상황을 설명함:

“아마존 지역은 벌목, 목축, 광업과 같은 특정 활동을 우선시하는 경제 개발 모델의 시행으로 인해 브라질에서 가장 많은 토지 분쟁이 집중되었습니다.”

“이 지역에 부과된 이러한 모델은 환경 범죄로 이어졌을 뿐만 아니라 인권옹호자들과 토지에 대한 권리를 위해 투쟁하는 지역 노동자들에게 극심한 폭력의 상흔을 남겼습니다.”

PRESS RELEASE: Civil society calls on world leaders to put human rights at the centre of environmental policy

Over 150 civil society organisations and academics sign open letter calling on world leaders to integrate human rights into global and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nd practice

In the lead-up to historic agreements on climate and nature being made in the next month, more than 150 civil society and indigenous organisations, and academics, from more than 50 countries, have today published an open letter calling on world leaders to put human rights at the centre of environmental policy.

"The science is unequivocal about the climate crisis, loss of biodiversity, and pervasive pollution," said Dr David R. Boyd, UN Special Rapporteur on human rights and environment.

"And so too is the evidence that a human rights-based approach to these environmental challenges is the best way to achieve just, healthy and sustainable solutions for people and planet."

Last week, the UN Human Rights Council adopted a resolution recognising the Right to a Healthy Environment. On the heels of that, today, Oct 11th, world leaders will gather online and in person in Kunming, China, for the UN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s COP15 meeting.

At COP15 – which will highlight the urgent, transformative action required to save the planet's nature and biodiversity – rights groups and their allies are battling to gain proper recognition for the rights of indigenous peoples and local communities in the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International negotiations coming up in the next few months represent a crucial opportunity to halt both global warming and the loss of biodiversity," said Andrew Norton, Director of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Environment and Development.

“But any agreements made won’t be worth the paper they are written on if they don’t include human rights at their heart. To be truly just and sustainable, policies on climate and nature must take into account the needs and rights of communities at the frontline of the crises,” said Norton.

In the open letter, the signatories – including prominent human rights organisations and civil society groups from the Global North and South, spanning every continent – stated that:

“As a global community we face multiple, intersecting crises: increasing human rights abuses and environmental harms by companies, land grabs, the loss of food and water sovereignty, increasing poverty and inequality, increased attacks and killings of defenders, climate change-induced disasters and migration, the diminishing health of the oceans and critical biodiversity loss.

“Resolving these crises demands a holistic approach to environmental policy that embeds human rights and tackles systemic problems, including historically rooted social injustice, ecological destruction, state capture by corporations, corruption and impunity, as well as and social and economic inequality.

“Just this month the Human Rights Council adopted a resolution recognising the Right to a Healthy Environment. And while there is evidence that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can lead to better environmental outcomes](#), calls for recognition of the holistic and indivisible nature of human rights and the environment often go unheard and unactioned in global, regional and national environmental and climate policy forums.

“The time to act is now: we call on you to bring together human rights, climate and the environment once and for all. In doing so, you can help us and our future generations to thrive by living in harmony with nature. In doing so, you can affirm that both nature and people have intrinsic worth and that governments are serious in their duty to respect, protect, fulfil, and promote human rights.

This holistic and indivisible connection of nature and human rights is deeply felt by the peoples who live closest with it.

“Defending human rights and defending the environment is to defend dignity,” said Claudelice Silva dos Santos, a human rights advocate working for justice and safety for environmental defenders in the Brazilian Amazon.

“It’s fundamentally important for us in the Amazon, because in the last few years our struggle to defend the forest has been attacked and criminalised,” she said.

---ENDS---

Contact information

For further information, to request an advance copy of the open letter, or to arrange an interview, please contact:

- Ligia Baracat ligia.baracat@cjcoalition.org | Corporate Justice Coalition
- Tom Dixon tdixon@forestpeoples.org | p: +44 1608 690760 | Media Lead, Forest Peoples Programme

Further information and additional quotes

The open letter urges world leaders to ensure that:

“... all policymaking related to the environment – including the climate and biodiversity crises, ownership and use of land, water and resources, ecosystem degradation, corporate accountability and trade, among others – addresses human rights and the environment in an integrated manner.”

ADDITIONAL QUOTES

Joji Carino, Philippines (Forest Peoples Programme / Indigenous and Local Knowledge Centres of Distinction / Member of IIFBES caucus)

“Indigenous peoples’ values and knowledge provide insights for reciprocal human-nature relationships amidst the crisis of biodiversity loss and climate change. This [biodiversity, climate and human rights] debate needs the voices of indigenous peoples.”

Lakpa Nuri Sherpa AIPP (Asia)

“As global citizens, we are all part of, and not separate from, nature. As indigenous peoples, we have been guardians of our lands for millennia and have deep interaction with the ecosystems where we live. Evidence shows our lands are among the most biodiverse on the planet. Only by recognizing the human rights, knowledge, innovations, and values of indigenous peoples and local communities will we be able to push forward the global agenda to sustainably use and conserve biodiversity.”

Edna Kaptoyo, Indigenous Information Network (Africa)

The transformative change needed to meet the global goals and conserve and sustainably use biodiversity requires us to first identify our own interactions with nature. That way, each of us will see our roles in finding and implementing solutions to the current [biodiversity] crises facing the world.”

Edinho Batista de Souza, Coordinator, Indigenous Council of Roraima (CIR), Brazil, describes the situation:

“The Amazon region has seen the biggest concentration of land conflicts in [Brazil], caused by the imposition of a model of economic development that prioritises particular activities such as logging, cattle ranching and mining.”

“This model, imposed on the region, has not only led to environmental crimes but it has also left a trail of extreme violence towards defenders of human rights and rural workers who struggle for land rights.” said de Souza.

시민 사회가 세계 지도자들에게 보내는 공개 서한: 인권을 환경 정책의 중심에 두어라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과 환경을 보호하는 것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그러나 88개국의 국가 원수들이 '[자연을 위한 지도자 서약\(Leaders Pledge for Nature\)](#)'에서 고립된 사고를 종식시킬 것을 촉구했지만 환경 정책 입안에서는 여전히 인권을 배제하거나 방관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오늘날 아래에 서명한 우리는 광범위한 원주민 단체, 인권, 토지 및 환경 옹호 단체를 포함한 시민 사회 단체, 남반구와 북반구의 학계 및 [UN] 전문가들에게 세계 지도자들이 모두를 위해 정의롭고 공평하며 생태학적으로 건강한 세상을 보장하기 위해 정책 결정에 인권, 환경 및 기후를 하나로 모을 것을 촉구한다.

자연과 사람 사이의 상호 관계는 태고적부터 존재해 왔지만, 지금은 균형이 맞지 않는다. 세계 도처에 숲, 대초원, 담수원, 해양, 그리고 심지어 공기 그 자체가 농업, 목재, 펄프 및 제지, 광업 및 석유와 가스 추출 등과 같은 산업에 의해 사유화되고, 오염되고, 파괴되고 있는지에 대한 셀 수 없이 많은 예가 있다. 이러한 산업과 다른 많은 산업은 대지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인권에 직접적이고 파괴적인 영향을 끼친다. 원자재의 생산, 추출, 가공과 가까운 곳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과 지역 사회는 다른 많은 학대들 중에서 그들의 토지의 몰수, 빈곤, 건강의 악화, 그리고 그들의 문화에 대한 파괴적인 영향으로 고통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이러한 침해는 인권, 토지 및 환경 옹호자들은 위협, 범죄화, 폭력적인 공격,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살인에 시달린다.

환경 파괴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의 모든 비용은 특히 남반구의 원주민, 아프리카계 후손, 지역사회, 여성, 어린이 및 청소년, 저임금 노동자와 같이 이미 불안정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불균형적으로 자주 발생한다. 뿐만 아니라 북반구에서도 가장 크고 가장 환경에 해를 끼치는 산업의 이익과 그 소유주와 금융기관의 부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오염 산업이 소외된 지역사회의 건강과 인권을 희생시키면서 이익을 얻는다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러한 환경 파괴는 우리 모두에게 간접적인 인권 영향을 미친다.

바로 이번 달에 자유권위원회는 건강한 환경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인권 보호가 더 나은 환경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증거가 있지만, 인권과 환경의 총체적이고 불가분의 특성에 대한 인식 요구는 종종 지구적, 지역적, 국가적 환경 및 기후 정책 포럼에서 무시된다.

이것은 바뀌어야 한다. 지구촌으로서 우리는 기업에 의한 인권 침해 및 환경 피해 증가, 토지 수탈, 식량 및 물 주권 상실, 빈곤 및 불평등 증가, 옹호자에 대한 공격 및 살해 증가, 기후 변화로 인한 재난 및 이주, 해양의 건강 악화, 심각한 생물다양성 손실 등 여러 교차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경 정책에 대한 전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이는 인권을 포함하고 역사적으로 뿌리 깊은 사회적 불의나 생태학적 파괴, 기업에 의한 국가 장악, 부패와 불처벌, 그리고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포함한 구조적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

우리는 세계 지도자들이 기후와 생물다양성 위기, 토지, 수자원 및 자원의 소유와 사용, 생태계 파괴, 기업의 책무성 및 무역을 포함한 환경과 관련된 모든 정책 결정이 인권과 환경을 통합적으로 다루도록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이는 시급히 요구되는 변혁적 행동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인권 존중, 보호, 증진 및 이행, 그리고 인권 옹호자에 대한 보호는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COP15** 및 유엔기후변화협약, **COP26**에서 향후 협상에서 채택될 조치의 필수적이고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이 되어야 한다. 인권은 또한 영국, 유럽연합, 미국에서 제안된 삼림 벌채 법안과 같이 지역 및 국가 차원의 기후와 환경 정책의 중심이어야 하며, 이는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행동을 할 시점은 바로 지금이다. 우리는 인권, 기후 및 환경을 완전하고 단호하게 통합할 것을 촉구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와 우리의 미래 세대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번영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연과 인간이 모두 본질적인 가치를 가지며 정부가 대지를 보호하고 인권을 존중, 보호 및 이행해야 하는 의무를 진지하게 수행하고 있음을 단언할 수 있을 것이다.

Put human rights at the centre of environmental policy

Respecting and protecting human rights and protecting the environment are inextricably linked. Yet while Heads of State from 88 countries have called to end siloed thinking in the Leaders Pledge for Nature, environmental policy-making still too often excludes or sidelines human rights.

Today we, the undersigned – a broad range of indigenous peoples’ organisations, civil society groups, including human rights, environmental and conservation organisations and human rights, land and environmental defenders, as well as academics and experts from the Global South and North – call on the world’s leaders to bring together human rights, environmental and climate in policy-making in order to secure a just, equitable and ecologically healthy world for all.

The reciprocal relationship between nature and people has existed since time immemorial, but it is now unbalanced. There are countless examples in all parts of the world of how forests, savannas, fresh water sources, oceans, and even the air itself, are being privatised, polluted and destroyed by industries such as agriculture, timber, pulp and paper, mining and oil and gas extraction. These and many other industries not only wreak destruction on Mother Earth, but they also have direct and devastating impacts on human rights. Indigenous peoples and local communities living in close proximity to the production, extraction and processing of raw materials suffer dispossession of their lands, impoverishment, deterioration of their health, and destructive impacts on their culture, among many other abuses. In turn, human rights, land and environmental defenders who seek to prevent these violations suffer threats, criminalisation and violent attacks, and increasingly, killings.

The costs of both environmental destruction and measures to address this often fall disproportionately on those already in precarious positions – such as indigenous peoples, afro-descendants, local communities, women, children and youths, and poorly-paid workers, particularly in the Global South but also in the Global North – while the profits of the largest and



most environmentally-damaging industries, and the wealth of their owners and financiers, continues to grow. It is unforgivable that polluting industries profit at the expense of the health and human rights of marginalised communities. And, ultimately, this environmental destruction has indirect human rights impacts on us all.

Just this month the Human Rights Council adopted a resolution recognising the Right to a Healthy Environment. Yet while there is evidence that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can lead to better environmental outcomes, calls for recognition of the holistic and indivisible nature of human rights and the environment often go unheeded in global, regional and national environmental and climate policy forum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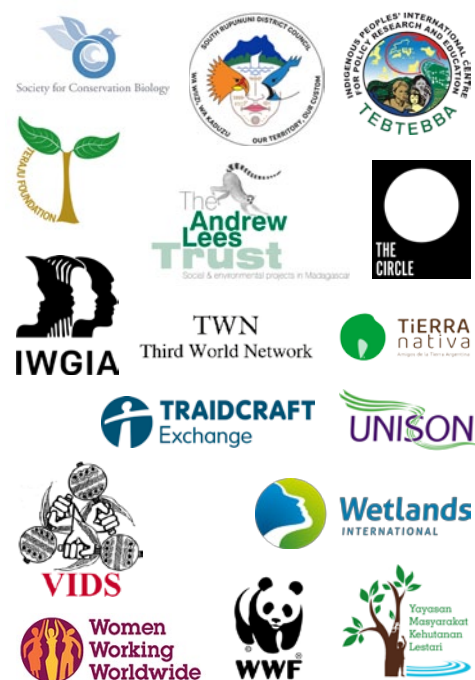
This must change. As a global community we face multiple, intersecting crises: increasing human rights abuses and environmental harms by companies, land grabs, the loss of food and water sovereignty, increasing poverty and inequality, increased attacks and killings of defenders, climate change-induced disasters and migration, the diminishing health of the oceans and critical biodiversity loss. Resolving these crises demands a holistic approach to environmental policy that embeds human rights and tackles systemic problems, including historically rooted social injustice, ecological destruction, state capture by corporations, corruption and impunity, as well as social and economic inequality.

We urge world leaders to ensure that all policymaking related to the environment – including the climate and biodiversity crises, ownership and use of land, water and resources, ecosystem degradation, corporate accountability and trade, among others – address human rights and the environment in an integrated manner. This would help to catalyse the transformative action that is urgently required.

Respect for, protection, promotion and fulfilment of human rights, and the protection of those who defend them, must be an essential and non-negotiable part of measures adopted in upcoming negotiations at the UN Convention of Biological Diversity, COP15, and the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COP26. Human rights must also be central to regional and national level climate and environmental policies, such as proposed deforestation legislation in the UK, the EU and the USA, which must be further strengthened.



The time to act is now: we call on you to unite human rights, climate and the environment once and for all. In doing so, you can help us and our future generations to thrive by living in harmony with nature. And in doing so, you can affirm that both nature and people have intrinsic worth and that governments are serious about living up to their duty both to protect Mother Earth and to respect, protect and fulfil human rights.



List of signatory organisations

1. ABColombia – United Kingdom
2. AbibiNsroma Foundation – Ghana
3. ADeD – Republic of Benin
4. Al-Haq, Law in the Service of Man – Palestine
5. Albanian Human Rights Group – Albania
6. ALTSEAN-Burma – Burma
7. Amerindian Peoples Association – Guyana
8. Anti-Slavery International – United Kingdom
9. Appui pour la Protection de l'Environnement et le Développement (APED) – Cameroon
10. Articulação dos Povos Indígenas do Brasil (APIB) – Brazil
11. Asia Indigenous Peoples Pact – Thailand
12. Asian Indigenous Women's Network – Philippines
13. Asocamp – Colombia
14. Association for Emancipation, Solidarity and Equality of women - ESE – North Macedonia
15. Association For Promotion Sustainable Development – India
16. Association marocaine des droits humains (AMDH) – Morocco
17. Association of Indigenous Village Leaders in Suriname (VIDS) – Suriname
18. Association Okani – Cameroon
19. Association pour la Promotion des Ecosystèmes Tropicaux et pour la Protection de l'Environnement (APETDS) – Republic of the Congo
20. Avaaz – United States of America
21. BirdLife International – United Kingdom
22. Both ENDS – Netherlands
23. Business & Human Rights Resource Centre – United Kingdom
24. Catholic Agency for Overseas Development (CAFOD) – United Kingdom
25. Center for Economic and Social Rights (CESR) – United States of America
26. Centre for Research and Advocacy, Manipur – India
27. Centro de Políticas Públicas y Derechos Humanos - Peru EQUIDAD – Peru
28. Chepkitale Indigenous Peoples' Development Project (CIPDP) – Kenya
29. Clean Clothes Campaign International Office – United Kingdom
30. ClientEarth – Belgium
31. Comisión Intereclesial de Justicia y Paz – Colombia
32. Community Empowerment and Social Justice Network (CEMSOJ) – Nepal
33. Comptoir Juridique Junior – Republic of the Congo
34. Conectas – Brazil
35. Confédération générale autonome des travailleurs en Algérie – Algeria
36. Construisons Ensemble le Monde –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37. CoopeSoliDar R.L – Costa Rica
38. Coordinadora de las Organizaciones Indígenas de la Cuenca Amazónica (COICA) – Ecuador
39. Corporate Justice Coalition – United Kingdom
40. Covenants Watch – Taiwan
41. Deache – Colombia
42. Egyptian Initiative for Personal Rights (EIPR) – Egypt
43. Emmaus Aurinkotehdas ry – Finland
44. Endorois Welfare Council (EWC) – Kenya
45. Environmental Defender Law Center – United States of America
46. Environmental Investigation Agency – United Kingdom
47. Environmental Justice Foundation (EJF) – United Kingdom
48. Equitable Cambodia – Cambodia
49. ESCR-Net (International Network for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 Switzerland
50. European Anti-Poverty Network – Belgium
51. European Coalition for Corporate Justice – Belgium
52. Federação do Povo Huni Kui do Acre (FEPHAC) – Brazil
53. Federación por la Autodeterminación de los Pueblos Indígenas – Paraguay
54. Federation of Community Forestry Users Nepal – Nepal
55. FERN – Belgium
56. Forest Peoples Programme – United Kingdom
57. Foundation for the Conservation of the Earth (FOCONE) – Nigeria
58.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 – Netherlands
59. Fundacion De Estudios Para La Aplicacion Del Derecho (FESPAD) – El Salvador
60. Fundación para la Democracia, Seguridad y Paz (FEDEPAZ) – Peru
61. Global Forest Coalition – Paraguay
62. Global Initiative for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 Mexico
63. Global Justice Now – United Kingdom
64. Global Witness – United Kingdom
65. ICCA Consortium – Mexico
66. Inclusive Development International – United States of America
67. Indepaz – Colombia
68. Indigenous Peoples Major Group for Sustainable Development – Philippines
69. Indigenous Peoples Rights International – Philippines

70. Instituto de Defensa Legal – Peru
71. Instituto Runyn Pupykary Yawanawá – Brazil
72. International Federation for Human Rights (FIDH) – France
73. International Institute for Environment and Development – United Kingdom
74. International Service for Human Rights – Switzerland
75. International Women’s Rights Action Watch Asia Pacific – Malaysia
76. Just Associates (JASS) – United States of America
77. Just Fair – United Kingdom
78. Justiça Global – Brazil
79. Karapatan Alliance Philippines – Philippines
80. La Route du Sel et de l’espoir – France
81. Landesa – United States of America
82. Le Centre pour le Développement et l’Environnement – Cameroon
83. Legal Resources Centre (LRC) - South Africa – South Africa
84. Lok Shakti Abhiyan – India
85. Lok Shakti Abhiyan – India
86. Lok Shakti Abhiyan (National Alliance Of People’s Movements) – India
87. London Mining Network – United Kingdom
88. Mbou-Mon-Tour (MMT) –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89. MINBYUN - Lawyers for a Democratic Society – Republic of Korea
90. Minority Rights Group International – United Kingdom
91. Movement for the Survival of the Ohoni People (MOSOP) – Nigeria
92. Nairobi People’s Settlement Network – Kenya
93. National Fisheries Solidarity Movement – Sri Lanka
94. Natural Justice – South Africa
95. Natural Resource Governance and Economic Justice Network (NaRGEJ) – Sierra Leone
96. Network Movement for Justice and Development (NMJD) – Sierra Leone
97. New Wind Association – Finland
98. Ogiek Peoples’ Development Program (OPDP) – Kenya
99. Organisation Guinéenne de défense 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 (OGDH) – Guinea
100. Organisation pour le développement et les droits humains au Congo – Republic of the Congo
101. Peace Brigades International – United Kingdom
102. Project HEARD – Netherlands
103. Protection International – Belgium
104. RedConPaz Somos Genesis – Colombia
105. Réseau Ressources Naturelles (RRN) –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106. Resguardo de Origen Colonial Cañamomo Lomapieta, Riosucio y Supía Caldas, Colombia – Colombia
107. Right to Education Initiative – United Kingdom
108. Sanjoy Hazarika – India
109. Sengwer of Embobut CBO – Kenya
110. Sin Olvido – Colombia
111. SITOAKORE (Organização de Mulheres Indígenas do Acre, Sul do Amazonas e Noroeste de Rondônia) – Brazil
112. Social Entrepreneur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 Liberia
113. Society for Conservation Biology - Cameroon Chapter – Cameroon
114. South Rupununi District Council – Guyana
115. Support Group for Indigenous Youth – Brazil
116. Sustainable Development Foundation – Thailand
117. Sustainable Development Institute – Liberia
118. Tebtebba – Philippines
119. Teraju Foundation – Indonesia
120. The Andrew Lees Trust – United Kingdom
121. The Circle NGO – United Kingdom
122. The Corner House – United Kingdom
123. The International Work Group for Indigenous Affairs (IWGIA) – Denmark
124. Third World Network – Malaysia
125. Tierra Nativa / Amigos de la Tierra Argentina – Argentina
126. Traidcraft Exchange – United Kingdom
127. TuK INDONESIA – Indonesia
128. Unison – United Kingdom
129. We Women Lanka – Sri Lanka
130. Wetlands International – Netherlands
131. WGII (Working Group ICCAs Indonesia) – Indonesia
132. Women Working Worldwide – United Kingdom
133. World Wildlife Fund – United Kingdom
134. Yayasan Masyarakat Kehutanan Lestari (YMKL) – Indonesia

List of individual signatories

135. Carol Kalafatic, Resistance Studies Initiative, University of Massachusetts-Amherst – United States of America
136. Dr Alice Karuri, Strathmore University – Kenya
137. Dr Ariell Ahearn, School of Geography and the Environment, University of Oxford – United Kingdom
138. Dr Asma Jabeen, Fatima Jinnah Women University, Rawalpindi, Pakistan – Pakistan
139. Dr Cathal Doyle, Senior Lecturer in Law, Middlesex University London – United Kingdom
140. Dr Diogo Veríssimo, University of Oxford – Portugal
141. Dr Emiel de Lange, University of Oxford – Netherlands
142. Dr Francisco J. Rosado-May, Universidad Intercultural Maya de Quintana Roo – Mexico
143. Dr Henry Travers, Interdisciplinary Centre for Conservation Science, Oxford University – United Kingdom
144. Dr Jerome Lewis, Centre for the Anthropology of Sustainability (CAoS) – United Kingdom
145. Dr Jorge C. Llopis, Centre for Development and Environment, Switzerland – Switzerland
146. Dr Leejiah Dorward, School of Natural Sciences, Bangor University – United Kingdom
147. Dr Richard Axelby, Senior Research Fellow, Department of Anthropology and Sociology, SOAS University of London – United Kingdom
148. Dr Stephanie Brittain, Interdisciplinary Centre for Conservation Science, University of Oxford – United Kingdom
149. Dr Timothy Kuiper, University of Cape Town – South Africa
150. Edith Bastidas, Indigenous Lawyer – Colombia
151. James McNamara, Conservation Research Consultants Ltd – United Kingdom
152. Jérémie Gilbert, Professor of Human Rights, the University of Roehampton – United Kingdom
153. Jessica Campese, Member, IUCN Commission on Environmental, Economic and Social Policy (CEESP) – United States
154. John H. Knox, Henry C. Lauerman Professor of International Law, Wake Forest University School of Law and former UN special rapporteur on human rights and the environment – United States of America
155. Jorge Varela Marquez, Goldman Environmental Prize winner 1999; Ambiente, Desarrollo y Capacitacion, Honduras – Honduras
156. Michael Stein, the Harvard Law School Project on Disability – United States of America
157. Niall Watson, Independent Consultant – United Kingdom
158. Professor Ann Taket, Deakin University – Australia
159. Professor Ian Scoones, co-director STEPS Centre, IDS, University of Sussex – United Kingdom
160. Professor Laura T. Murphy, Sheffield Hallam University – United Kingdom
161. Professor Michel Pimbert, Director of the Centre for Agroecology, Water and Resilience, Coventry University – United Kingdom
162. Ruth Spencer, Local Community Advisor – Antigua & Barbuda
163. Sarah Lunacek, University of Ljubljana, Department of Ethnology and Cultural Anthropology – Slovenia
164. Tim Cooke-Hurle, Barrister, Doughty Street Chambers – United Kingdom
165. Universidad de Paz – Colombia
166. Werner Soors, Equity & Health, Institute of Tropical Medicine, Antwerp – Belgium